2026년 11월 26일 공보 2026-11-08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통화정책방향

□ 2026년 11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참조)

□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하여 2026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한편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은 (별첨)과 같음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안세현, 차장 정우재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금융기획팀 팀장 김범서, 과장 한대성(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Tel: (02) 759-4491, 4515
공보관: Tel: (02) 759-4199,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붙임)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중동지역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하였다. 미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AI 투자 전망, 주요국의 통화·재정 정책 변화, 중동사태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취업자수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 개선,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큰 폭 상회하는 3.9%, 4.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및 내수파급 정도, 중동사태 전개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모두 10월 중 개인서비스 및 내구재 가격의 높은 상승세로 2%대 후반(2.8%)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0월 중 2.6%로 전월(2.7%)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는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성장세 확대로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2.7%로, 내년에는 지난 전망치(2.3%)를 상회하는 2.4%로 전망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지난 전망치(2.5%)를 상회하는 2.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가는 글로벌 AI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큰 폭 조정되었으며, 국고채금리도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수출 및 투자 호조 지속, 소비 회복세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는 비용 및 수요측 압력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5명은 찬성하였으며, 황건일 위원과 이수형 위원은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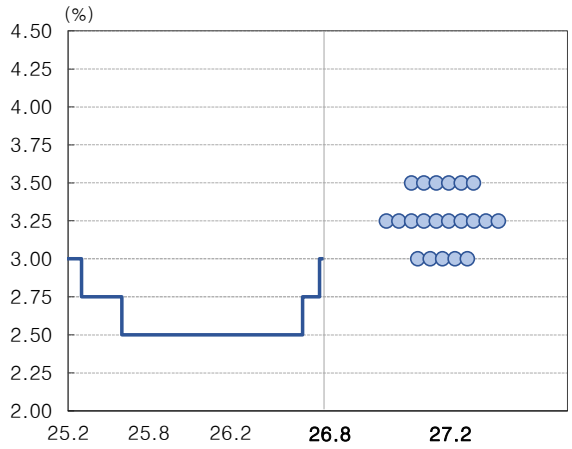
(별첨)

2026년 11월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

□ 금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통위원이 제시한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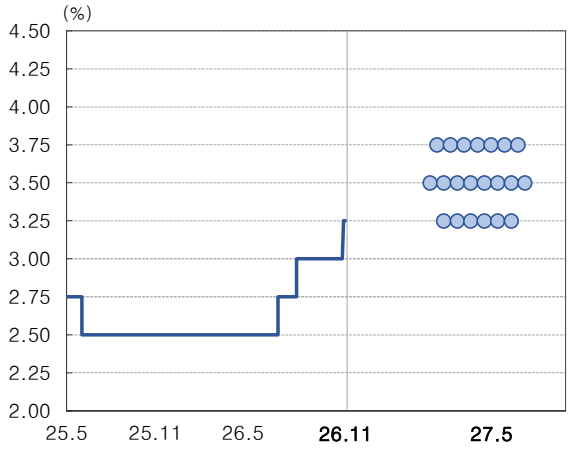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직전(26.8월) 전망[1)]】



주: 1) 2026.8월에 제시된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 3.50% 6개, 3.25% 10개, 3.00% 5개

【금번(26.11월) 전망[2)]】



주: 2) 2026.11월에 제시된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 3.75% 7개, 3.50% 8개, 3.25% 6개

【금통위원의 금리전망 제시방식】

□ 금통위원은 각자의 6개월 후 금리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

■ 금통위원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기초로 각자의 전망을 반영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금리 수준을 의미

■ 각 금통위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전망의 확률분포를 반영하여 3개의 점을 제시. 예를 들어, 점 2개와 1개로 서로 다른 금리수준에 나누어 제시할 수 있으며, 점 3개를 모두 동일한 금리수준에 제시하거나 점 3개를 각각 다른 금리수준에 제시할 수도 있음

□ 제시주기는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시(2, 5, 8, 11월, 연 4회)